

월요광장

독립출판 시대의 낭만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왜? 무슨 일인데?’ 놀라서 답을 한 적이 있다. 연이어 날아온 한마디는 ‘이 책 읽고 싶다고!’였다. 아, ‘그게 책 제목이었구나’ 한바탕 웃었으나, 순간 걱정과 염려가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 책을 선물로 사서 보았다.

책 제목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도 많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책이 있었나 싶게 독특한 방식으로 출판되는 책도 있고 한정본으로 소장 욕구를 불태우는 책들도 부지기수다. ‘내가 30대가 됐다’, ‘안녕, 춘춘 주공아파트’, ‘문학과 죄송사’, ‘칠곡 할매 시 노트’, ‘부정선거 도감’. 이런 책들은 오직 독립 서점에서만 살 수 있는 책 제목이다. 이제 막 30대를 맞은 청년의 글부터 재건축으로 사라질 아파트 주민이 쓴 기록물, 대형 출판사를 패러디한 문집, 지역 할머니들의 시

집, 근현대사 부정선거 역사까지... 1인 독립출판, 자가 출판, 셀프 퍼블리싱 방식으로 동네 서점과 연계해 독자들을 만나는 작가와 작품들이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한 것이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백세희)는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앓는 환자의 치료 기록을 담은 책이다. 작가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공감아 필요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대신 자신이 ‘나 여기 있다’고 힘차게 손 흔들어 보기로 했다. 누군가는 자신과 비슷한 내 손짓을 알아보고 다가와서 함께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 그 마음에 공감한 독자들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책이 탄생했다.

최근 도서관에서도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 독립출판학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도서관에서 독립출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책을 낸 이도 있다. “친정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베란다 한쪽에 이 흑장미 무늬 접시가 있었어요. 엄마가 버리려고 한켠에 두고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였는데 울케 언니는 그냥 낡은 접시라 생각하고 버리자고 했죠. 그런데 전이 접시를 보니까 어릴 적 엄마가 해 주던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왔고 이후 점점 기억을 잃어 가는 엄

마와 어릴 적 우리가 먹었던 반찬을 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일상을 기록한 게 이렇게 책이 되었고요.” ‘맛의 기억’(조우)은 엄마가 해 준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간단한 레시피, 작가의 딸이 그린 그림으로 구성되었다.

독립출판은 기존 출판 시장에서 책을 만들지 않고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이 직접 책을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주류 자본 시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실험적이고 일상적인 주제가 주를 이룬다. 바야흐로 누구나 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독립출판의 매력은 무엇일까?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고,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기성 출판물의 형식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요.”

독립출판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오프라인 서점 이용자가 많지 않고 책 구입 권수도 많지 않아서다.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인당 온라인 서점 평균 도서 구입 권수는 3.4권으로 1인당 오프라인 서점 평균 도서구입 권수 1.8권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어떤 공식이 없어서 정의하기도 쉽지 않지만, 제작 과정은 물론 디자인과 홍보와 유통의 세부

적인 전문성에서도 해결해 나갈 과제가 많지만, 우리 사회의 어느 지점에서 다양한 탐색과 모색이 이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쓴 에세이가 갖는 힘, 그들만이 들려줄 수 있는 진실한 기록들, 언어를 갖지 못한 이들이 처음 가져 보는 공적인 목소리의 등장을 받게 되고 싶다. 나도 겪고 너도 겪은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삶을 위로받고 공감하는 시대에 독립출판물을 통해 흘러나오는 맥락들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세상의 작은 진보가 아닐까 하는 낭만도 가져 본다.

어딘가로 여행을 가면 꼭 둘러 보는 곳이 동네 책방이 되고, 거기 가면 특별한 책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하고, 우연히 발견한 책이 사랑스러워 안고 오고, 나에게 발견되기 위해 나만을 기다려 온 책이라 이름 붙여 주면 좋겠다. 서점 주인이 써 놓은 소개 글에 공감하고, 오지랖 넓게 책방의 매출을 걱정하면서, 안사면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해서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 작지 만 의미 있는 걸음이 언제나 창조와 특이 된다는 믿음에서 말이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감회



박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청년특위 위원장

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 관계나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조차도 배려를 보이려면 상대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명절에 친지를 방문하거나 맞이하는 일조차도 마음의 여유 없이는 불편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와 체제 보장, 종전 선언 등 의제만 들어도 그 무게감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양 정상과 수행원들의 속내가 편하기만 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모두 담담하고 자신 있게 서로를 배려하며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친 것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 내외가 함께 찍은 사진은 이번 회담의 백미였습니다. 추척 인사 배경 사진으로 많이 쓰여 누구나 한 두 번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민족의 염원을 통일을 꼭 이루겠다는 자신감을 남북뿐만 아니라 대외에 대법하게 보여준 장면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그 보다 더 명확히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UN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과 행보를 보며, 매우 뿌듯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줄 것을 회원국들에 당부하면서도, 현재의 화해 무드의 공을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돌림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마련하도록 했다는 기사를 접한 지 한참이 지났으나 이렇다 할 후속 결과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 간 서로를 혐오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이렇다 할 정책적인 중재나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서야,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정부의 구성원 모두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 주길 바랍니다.

한편 자칫 국내 문제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 자영업 고사, 집값 상승, 환율 등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사, 남녀, 민부의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되고 있고, 서로를 혐오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어 우려됩니다. 경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규제 개선 등의 미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기사를 접한 지 한참이 지났으나 이렇다 할 후속 결과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 간 서로를 혐오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이렇다 할 정책적인 중재나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서야,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정부의 구성원 모두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 주길 바랍니다.

기고

지역 미래 성장 동력, 광주·전남 상생으로부터



안형순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형성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군 공항이 입지하는 것은 그것이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해 지역민들 사이에는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암묵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광주 공항의 완전한 이전을 전제로 광주공항 부지가 향후 어떠한 형태로 광주 도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선 7기 제1호 일자리 핵심 공약으로 ‘빛그린 산단-도시첨단 산단-광주 공항’을 잇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1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뉴딜 정책을 현실화시킨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광주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광주 공항 부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 계획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광주가 품게 될 820만㎡(248만 평)의 노른자 땅이 앞으로 광주는 물론 전남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이곳의 성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

해서는 이번 연구 용역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월 빛가람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및 광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와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Kista Science Park)를 방문한 적이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1974년 개발을 시작한 이후 지금은 IBM과 세스코 등 1400개 기업과 국공립 연구소,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법인세 면제와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니스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는 원래 군 훈련장이었던 곳을 1976년 스웨덴 최대 기업인 에릭슨의 연구소가 이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에릭슨 본사 및 노키아, IBM 등의 지사가 입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대학 및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등이 입주함으로써 고용 인원만 2만 명에 이르는 세계적인 과학 기술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 두 지역은 기업간의 다양한 협업과

연구 개발, 그리고 대학과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적인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은 물론 국가적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선별처럼 다가온 광주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광주는 물론 전남 지역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 도심에 형성된 대규모 공항 부지가 앞으로 광주 발전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지방 정부는 물론 전문가, 지역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여 최적의 대안을 만들고 실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광주로 몰려들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자본이 집적되는 광주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항 부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하고 실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 광주로 성장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모든 계획에 앞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광주·전남 상생의 첫걸음으로 민간 공항 이전을 합의했듯이 이제는 군 공항 이전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社說

성과 위주 청년상인 창업 지원 원점 재검토를

정부 지원으로 전통시장에서 창업한 청년 상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성과 위주의 부실한 정책이 사후 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과 1-2년 만에 점포 문을 닫고 떠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부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광주 남구 무등시장에 등지를 둔 청년상인 점포 열 곳 중 현재 영업 중인 곳은 단 한 곳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여덟 개는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고 한 개는 점포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문을 연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의 청년상인 점포도 열 곳 중 두 곳이 폐업했고 한 곳은 휴업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까지 3년간 1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점포 499곳 가운데 165곳(33%)이 폐업했

고, 19곳(3%)은 휴업 중이라고 한다.

청년상인 점포의 생존율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성과 주위와 그에 따른 준비 부족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창업 자체가 성공하기 힘든 여건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과 경험 축적 없이 장사에 나서도록 등을 떠민 것이 폐업의 원인이 됐다. 이는 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초기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비 일부만 지원하고 사후 관리는 소홀히 해 온 점도 한계로 꼽힌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마저 종료되면서 문 닫는 점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상인들이 자생력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특화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입지 여건이나 사업 아이템, 마케팅 전략, 기존 상인들과의 관계 형성 등에 문제는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함으로써 청년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우려 할 것이다.

내 아이 학교 앞이라도 그리 빨리 달릴 것인가

학교 앞 도로에서도 과속을 멈추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표면을 붉게 칠하고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스쿨존 과속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광주·전남 과속 차량은 8843대(건)로 파악됐는데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 2016년 2892건에서 지난해엔 6422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나주시 남평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차량은 무려 3593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은 유치원생 58명을 포함해 400여 명이 다니는 이 학교 앞 도로에서 하루 평균 10건씩 과속한 것이다. 다음으로 목

포시 대성동 대성초 앞(북향 방면) 1709건, 여수시 삼양동 삼양초 앞(도도 방면) 8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스쿨존 속도위반 최대 적발 장소는 수완지구 장덕초 앞(하남로 방면)으로 연간 979대가 단속됐다. 다음으로 우산동 무등초교 앞(전남대 방면) 512건, 효령동 광주북초교 앞(용전방면) 264건, 농성동 광천초교 앞(광천1교 방면) 132건, 월곡동 영천초교 앞(하이마트 방면) 58건, 주월동 장산초교 앞(한방병원 방면) 32건 순이었다.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언제 어떻게 도로로 불쑥 튀어나올 줄 모른다. 따라서 스쿨존에서 시행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상식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1만6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 불과한 무인단속 카메라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 나누기’다. 평균 연봉 8천만 원 수준의 ‘고임금’ 근로자 한 명 대신 초임 연봉 3천만 원대의 ‘중임금’ 근로자 여러 명을 고용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지리를 새로 창출해 낼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가 ‘참여 불가’를 선언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

광주형 일자리

다.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책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 하는’ 사람의 본성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될 경우, 연봉 8천만 원대의 근로자는 누군가가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드러내 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연봉 8천만 원이 적당할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고 또 확산할 경우 언젠가 자신들의 연봉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쪼들 가능성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 장래의 일이겠지만 예상되는 또다른 문제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훨씬 더 적은 연봉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이다. 취직을 해야 하니 일자리가 생기면 당장 해야 좋겠지만 ‘소중할 나의 노동이 왜 타인의 절반 수준밖에 평가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불평불만이 서서히 쌓여 갈 테고, 결국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촉발되는 것은 시기 문제일 뿐 불가피한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봉 8천만 원이 많은 것인지, 연봉 3천만 원이 적은 것인지, 어느 누구든 확고한 근거를 들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다. 현재 국가의 경제 상황과 개별 기업의 여건 그리고 노사 간 합의에 따른 것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그 일을 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의 생각과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분명히 좋고 또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먼저 광주시와 노동계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노동계의 불안을 가시게 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홍행기 정치부장·부국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집부 220-0649 정리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64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52 에담부 220-0692 사진부 220-0693 체육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다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